

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

민주당 의혹제기 시민단체 고발
윤 구속취소사건 맡은 수사3부 배당
대법원도 조사...향후 절차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접대 의혹’ 조사 착수해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교류가 있던 친구 사이 등 일상적 친목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먹은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 동석자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식대·주대 등의 불법성을 가릴 때는 발생한 총 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회에 100만원이 넘으면 벌금형 대상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은 건 생각해보면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중앙위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남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 등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 제안...민주, “황당” 일축

김문수 “배우자 검증 국민 알권리”
이재명 “즉흥적이고 무책임”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 TV 생중계 토론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난 극복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후보 검증에 주력할 때”라며 “마이크 잡고 할 이야기 아닌 것 같다.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소통단장인 전용기 의원은 “공직자도 아닌 사람을 TV 앞에 세워 정치쇼를 벌이자는 발상

이 제정신이나”며 “김건희의 수렴정정 의혹을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인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이런 코미디 같은 제안이 앞뒤 생각 없이 나왔다니 놀랍다”라며 “설남영씨가 제2의 김건희 같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든다”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나”라며 “그것이 그 당의 문제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에 그런 식으로 장난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 격식에 맞게 말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김 위원장이 최근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점을 겨냥, “내가 말했다고 조작한 그 분이죠”라며 “그거 처벌받아야 된다. 그럼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후보자 검증이 기본이지만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면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저는 거절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엄정히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건 기본적인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특사단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 말해”

홍 “김문수 지지·승리 기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일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파란색 넥타이를 맨 홍 전 시장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으로 민주당발(發)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많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인식 못 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경선 탈락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는 홍 전 시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특사단 자격으로 김대식 의원 등과 하와이를 찾았다. 유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분명히 저희와 대화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하셨다”며 “결국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은 어떤 형식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이 (당에) 돌아온다면 요청하는 내용은 다 수용하고 판단과 역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맡길 테

니 도와달라는 (김 후보의) 말씀을 잘 전달해드렸다”며 “홍 전 시장은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고 말씀했고, 오늘 저녁에 다시 자리하면서 다시 한번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현 대선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지자 그룹 사이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광장이 약하다는 것”이라며 “홍 전 시장이 그런 분석을 먼저 말씀하셨고, 합류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선 재외투표 ‘1호’ 주인공은 뉴질랜드 예비 대학생

“7시간 기다려 투표 ‘뿌듯”

뉴질랜드의 한인 예비 대학생이 20일(현지시간) 각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서 전 세계 첫 투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이 특별한 기록의 주인공은 오클랜드 노스슈어에 거주하는 김현서 양으로, 그는 이날 오전 1시부터 투표시작 시간까지 7시간을 투표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 1번 대기표를 받았다. 2006년 7월생인 김양은 지난해 생일에 만 18세 성인이 되면서 법적으로 투표권을 얻었고, 이번 대선 재외투표가 그의 첫 투표권 행사다. 날짜변경선을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되는 곳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주오클랜드 한국분관, 주피지 한국대사관 재외투표소다. 한국 시간보다는 3시간 빠르다. 이에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광상열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대선 때마다

‘재외투표 1등’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오클랜드에는 1만60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김양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렘 반 떨림 반으로 7시간을 기다렸는데 투표를 마치고 나니 뿌듯하다”며 “6일 동안 진행되는 재외투표에 많은 분이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유권자연대와 함께 재외투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기획하고 홍보용 프로필 이미지와 투표 독려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재외투표 기간에 투표소 참관인으로도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은 부모를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 지난해 9월 오클랜드 파인허스트 스쿨을 졸업했고, 오는 9월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과 입학학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1차)

본 회사는 2025년 4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5월 13일까지 해산동기를 완료하였으며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1일

주식회사 엔제리랩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벤처지원센터 별관 104호(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청산인 김형열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정장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월별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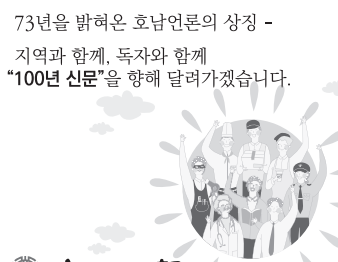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 5. 19.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써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025. 7. 22.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1일

주식회사 대정산업

여수시 화양면 소호로 8-1
대표이사 김정식



• 지역안내 •

북구	• 동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송 433-1503	• 문 266-1960 • 신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경 673-6836 • 동 부 225-0001 • 송 222-8171	• 동 명 222-9054 • 송 양 222-9054
남구	• 남 부 673-6836 • 동 산 673-6836 • 진 월 671-7276	• 백 은 651-1833 • 송 하 675-6605
서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경 376-6511 • 화 정 369-1625	• 신 무 372-2352 • 문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청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